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1: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제3차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날리 올리고 퍼졌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인(마 26:39)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라나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에 같은 세상 일명생 잘 배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찬송가 240장)

10월 28일, 충현교회는 또 하나의 갯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갯세마네에서 땅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예배실을 가득 메운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세상의 축복만을 기도했던 이전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8년 동안 섰포되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각인하며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처럼 충현의 갯세마네에서 모든 성도들은 보혈의 은총을 배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1 순종함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 중에 순종하심을 배우셔야 했다(히 5:8).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모든 지혜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일생을 통하여 배우신 순종을 갯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셨다. 배우시고 체험하시고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벽하였다. 죽음 앞에서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극치를 보여 주셨다. 이처럼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골 3:4).

2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이것은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말씀이다. 예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기도의 넓고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을 명령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겔 37:4, 온 1:2, 창 30:1). 주님의 간절한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자기부인의 경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높고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3 왜 이 기도가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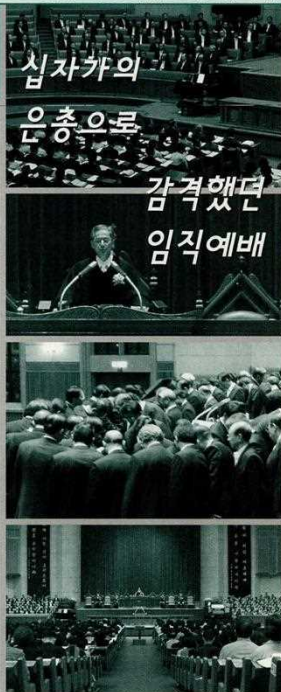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된다(골 3:12).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갈 2:20, 고후 5:17).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지 못할 때에 진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 빛진 십자가의 사랑과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감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

4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빌 4:4,7).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길 자들은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자신이 부인 되어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나의 믿음의 결정을 요구하신다! 주님의 권능을 믿는다!"

5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마 16:24, 25).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자(요 3:30). 마음과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흠 없는 자로 세워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9).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26일)에 임직을 받았던 분들 심령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임직자들은 평편했던 유대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 것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과 복음을 위해 직분을 추스음을 진실로 감사하였습니다. 임직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임직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은총이음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금번에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이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롬 15:16)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 4:17).

*다음주(11월 6일), 제 7차 성찬식이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 사이에 있습니다.

IN REMEMBRANCE OF ME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1 Corinthians 11:23-25)

Jesus Christ commands His followers to partake of His bread and cup in remembrance of Him. This order is very simple, yet intricately filled with glorious meaning. This charge is perfectly clear, but over the last two-thousand years the church, particularly the Catholic church, has clouded its practice. When you look at how Jesus started this wonderful meal, you see that it was not a big and fancy celebration or complicated ordeal. Jesus took some bread, gave thanks, broke it into pieces, and before handing it to His disciples,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v. 24). In the same way, He picked up a cup, gave thanks, and before passing it to His disciples, sai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 25). It is apparent that Jesus wanted His followers to eat His bread and drink from His cup only in remembrance of Him. His instructions are simple and clear, but people try to ritualize this holy sacrament with other things. No one should add or subtract anything from the Lord's Supper.

The principal goal of the Lord's Supper is for believers to remember that Jesus Christ died for sinners. He became the sacrificial Lamb of God, "having offered one sacrifice for sins for all time," so that "by one offering He has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sanctified" (Heb. 10:12&14). He wants us never to forget His death upon a cross, His once and for all sufficient sacrifice. When you look at the Lord's Supper, you see that Jesus does not emphasize other things. He only points out the significance of His death. He is the only deliverer from worldly sin. As you take His bread and cup, the act itself is like a sermon. It should not be ritualistic but realistic. Your heart needs to be appreciative and sincere, not hypocritical.

The Lord's Supper is just for remembering Jesus. If you never married, then you cannot remember your marriage. However, you were born, and so you do recognize one day out of the year as your birthday. You also have experience remembering the freedom of our country on August 15. People around here get very excited about remembering that day. Did you get excited walking into church today, knowing that you were about to remember Jesus? If you do not know Him, you obviously cannot remember Him, and if you do not experience Him, you cannot remember Him. Jesus reconciles all things to Himself,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through Him, I say,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Col. 1:20). Do you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You cannot remember if it never happened to you. Can you say,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t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Gal. 2:20).

The Lord's Supper is for you. It is an individual experience, not a group experience. Jesus broke the bread and gave each of His disciples a piece to eat;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for each disciple to have their own drink. It is a historical fact tha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died for you! His sacrifice was personal, not corporate. He died on a cross to forgive your sin. He delivers you from death, not a group of people. Indeed, as a church we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 Lord's Supper, but we do so individually. You cannot rely on your neighbor to remember Jesus for you. This is something you must do alone. As a believer, you hav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Jesus' death in order to partake of His Supper. Jesus said that the bread and cup represent His flesh and blood. This is the gospel message; Christ died for you, so that you could live. There is no other way to eternal life but through Him. Without Jesus, your condition is terminal. You have no other hope for survival but through Him. You are a born sinner, and the price for any sin is death. In other words, without Jesus you are headed straight for hell. Sin is your biggest problem, and Jesus is your only solution. No one can possibly keep all God's laws, and anyone who breaks even one is cursed,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abide by all thing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to perform them" (Gal. 3:10). Praise God,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hangs on a tree'" (Gal. 3:13). Galatians 4:4&5 say,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so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If Jesus is your Redeemer, Savior, and Lord, then come now and remember Him at His Table. He died for your sins. The bread you are about to eat should remind you of His body, which He sacrificed in order for you to have the opportunity to relate with God. The cup you are about to drink should remind you of His blood, which cleanses all your sin and makes you holy. Please, as you take the wonderful bread and cup Jesus offers, do so in remembrance of Him. 🙏

다음 주일 설교

나를 기념하라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23-25)



김성완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보이지만 그 안은 심오하고 영광스러운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천 년 동안 교회, 특히 카톨릭은 성찬의 본질을 흐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성찬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살펴본다면 그것이 결코 성대하고 화려한 축하 행사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제형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 절). 이와 같이 주님은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잔을 마시라고 명하신 것은 오로지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다른 것을 가미하여 의식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의 만찬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위한 죽음임을 기념하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곧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히 10:12-14).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충분한 희생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외의 것들을 전혀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리키는 의미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시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취할 때 그 자체가 한 편의 설교가 됩니다. 그것은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선이나 진실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기념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특별히 생일로 따로 구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을 기념할 주의 만찬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주님을 모르면서 그분을 기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 그분을 기념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여러분에게는 이

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주님을 기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나를 위한 죽음임을 기념하라

주의 만찬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 그것은 한꺼번에 단체로 겪는 경험 이 아니라 개개인이 겪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조각씩 주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 각 사람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의 희생은 단체가 아닌 개인을 위한 죽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 이와 동시에 이 만찬에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에 옆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자라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이 자신의 삶과 피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상황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갈 3:10).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속자요, 구세주요, 주님이 되신다면 이제 주님을 기념하는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대할 때 주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입을 열게 하소서 (골 4:2-6)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여야만 온전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골 3:1). 위엣 것을 찾는 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바르게 살면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죄인 중의 죄수라는 고백과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삶이 있어야 한다. 주님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을 열라고 하신다. "입을 열게 하소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한다. 인간들과 의논하지 마라. 이별 때 나의 것이 나를 주장하게 만든다.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타락하였다. 나의 뜻을 내세울 때 우리는 넘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다. 또한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나 행한 것 죄뿐이나..."(찬 332장).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된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의 기도를 드리지. 무엇보다도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모든 상황, 만남 속에서 기도하라. 주님은 이미 기도를 받으실 준비를 끝내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마 11:28)고 말씀하시며 이미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무시한다.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찾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엡 6:4).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이들은 고백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영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빌 4:6).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 없다. "편관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찬 367장). 진실로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소서.

전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3).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한다. 회개하라!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라. 선민들의 시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나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전 1:21).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다(고전 2:12).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였다(빌 1:21).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고전 4:1).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 전도의 입술을 열게 하소서.

지혜로운 입술을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은 해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 4:5-6).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사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신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주님을 자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입술을 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우리는 날마다 장사되어야 할 수 있다. 나의 뜻을 포기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6).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자는 좁은 길을 걷는다(마 5:37). 나의 뜻, 나의 의견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지혜로운 입술을 열게 하소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사 6:7). 제단에 내 숯불로 인해 정결해진 이사야의 입술처럼 우리의 입술도 정결해져야 한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 전도, 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 복방 열음산과 또 대방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을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믿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찬 273장).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십자가를 전하는 입술이 되라. 아멘.

은퇴를 앞둔 장로가 고백하는 십자가 복음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복음을 위하여 산단, 핍박, 곤난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전하다 순교한 사도 바울의 신앙백이 이를 수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남은 생 오직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인 저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은총을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까? 특히 부족한 저를 교회의 장로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기까지 함께하심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 묻혀서 처음 주님을 만난 기쁨과 구원의 감격, 처음 주님을 향한 첫 믿음, 첫 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갈보리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참된 복음이 세상의 축복, 육신의 행복이 되기를 원했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종교적 지위, 전통, 도덕,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자세로서 복음을 흐리게 하고 나의 교만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악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행 8:22).

저의 연약함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입문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오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했던 교사들과 십자가를 전하는 천국입문을 키우기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열과 성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주님

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단련된 이들이 이 시대의 참 빛인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종인이 되었음을 볼 때 주님의 성령을 찬양하길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헌 교화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창을 열게 하시고 금년에 2700여 이상의 단거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주를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가시는 주님의 권능을 더욱 찬양합니다. 금년에 충헌 교회 설립 52주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로 성전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하겠습니다(딤후 4:8). 사도바울의 고백이 십자가로 확증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년 수의 재림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은퇴를 앞둔 저의 나약함을 실감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육신은 쇠약하나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날까지"(딤후 1:12)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중언이로라"(행 3:15).



임철성 장로

선·교·후·기

천국에서 꼭 만나자!

♡ 마음은 찢듯이 같은 악취와 습기로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감히 용기를 내지 못 하고 놀려 있었어요. 그러나 어딘가 불어 온 거대한 광풍이 습기와 악취를 몰아내고 상쾌한 냄새를 몰고 왔지요. 그것은 갈릴리에서 큰 바람을 잔잔케하신 그 분의 능력이었지요. 그 때 움츠렸던 우리 팀원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생명이 들어 왔어요. 다른 벼들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작은 벼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저쪽에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오집혜 집사)

♡ 사역지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였고 그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현지에서 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이가 자기 형 언형이 암에 걸렸는데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팀원들은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언형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언형의 침상을 둘러싸고 그의 마른 몸을 붙잡고 눈물로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배만 압상한 언형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영혼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역 기간 동안 언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부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김복성도)

♡ 햇빛이 내려 쏘이는 마른 길은 따라 힘입어 걸어서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빨간색의 차도르를 입고 등에는 바구니를 지고 생가라고 없는 모습으로 걸어 왔습니다. 그 차림새가 얼얼없는 “무통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님은 이 여인에 대해 간절히 있었고 저는 그 여인을 향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여인은 한사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 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는 진리의 말에 그 여인은 드디어 “야(예)...야(예)...”를 거듭하였고 이윽고 영접기도를 마친 여인의 얼굴은 천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경숙 집사)

♡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과 헤어질 때 나는 그들의 눈을 보면서 “이 생이 끝난 후에 천국에서 꼭 만나자”라고 손가락을 걸쳐 약속했습니다. 그들도 나의 이러한 제의에 응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난 후의 그날 아침, 그곳에서 서로의 이름을 크게 불러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헤어지는 아쉬움을 뽐내며 이름을 주고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친구, 시앰, 잭슨, 디아나 등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M국의 나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내가 만약 최후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나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아 천국의 공물공물을 다닐 것이 아닙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과 그 나눔 소망합니다.

(장원희 집사)

(5교구 추가지역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 이전에 진심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해 탐자와 같이 숨고 도망가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내적 자유를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거기가 율법과 종교, 복음의 지식 등, 진정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로 둘러싸인 겉절을 벗게 하였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죄인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비참한 나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고 내 맘은 언제나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사람을 보게 포로되어 높아지기만을 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건강한 의인을 만나리 오신 것이 아니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마 9:12). 주님은 세리, 창녀, 수가성의 여인, 무력하고 비참한 38년된 병자 같은 나를 만나러 오셨다. 나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낮아지기 싫었고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기가 너무 아프고 두려웠다. 사단은 또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엄청나게 놀려서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자유이고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먼저 내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내 속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이다. 다른 첨가물은 없다. 나는 죄의 모습이 너무 두렵고 인정하기 싫어 이 복음 외에 풀과 누룩을 첨가하고 싶었다. 내 노력, 율법, 성실, 복음의 지식들로 무장한 사단은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을 방해했다.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가 없는 나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려 놓으며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다.

우리가 원래 목표한 곳은 곡실과 기상악화 때문에 가지 못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리라 믿었다. 주님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고 그들에게 내가 아닌 성령으로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우리나라의 사정같은 곳에서 전도할 때 다소 두려움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불신이 있었지만 그 마음 또한 주님께 맡기고 복음만 전할 때 오히려 한 가정과, 연인과, 한 무리의 친구들 그리고 홀로 있는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마을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정과 아이들에게 복음과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을 전했다.

5박 6일의 짧은 사역을 마치며 이번 선교를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욕망이 팀원들을 바라보게 하고 성령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전하려는 모습이 있었는지 회개하며 그럼에도 조금씩 주님 안에서 성숙케 하심에 감사드렸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뿌린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며 견고케 되어 그들이 더욱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늘 동행하시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효석 (청년1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31일(월) - 11월 3일(목)	소망부	이덕규	10월 31일(월) - 11월 5일(목)	원로장로	하대선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10월 29일(월) - 11월 5일(목)	유년부	김홍기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17일(월) - 10월 25일(화)	합일루터아 전양대	최신재	10월 18일(화) - 10월 25일(화)	영아부	김성호
10월 18일(화) - 10월 25일(화)	장년3부	김연태	10월 21일(금) - 10월 28일(금)	영아누월 전양대	김만수

"예수님을 전해요"

주은이는 5살, 유아부에서 찬양 부기를 좋아하는 찬양대원입니다. 가끔 찬양대에서 예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장난치면서도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의 찬송 소리를 귀담아 듣다가 엄마가 이번 주 찬양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찬송가 〇〇장이에요"라며 엄마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은이는 아빠 엄마께 빨리 동생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조릅니다. 그런 주은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주은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니다.



엄마 : 주은아! 주은이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주은 : (웃으면서) 하나님의 딸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엄마 : 그런데 주은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주은 : 나 때문이요 내 더러운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팽향 못 박히셨어요.

엄마 :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주은 : 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져요.

엄마 :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주은 : 사탄한테 가요. 지옥 가요. 하늘나라 못가요.

엄마 : 그럼 우리만 예수님 믿고 친구가면 될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주은 :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해야 돼요 "교회 가자"라고 말해야 해요.

엄마 : 그래 주은이는 예수님 믿는 애반 친구구나 친구한테 전도도 잘 하고

기도도 잘 하는 애반 친구가 되자.

사실 이런 주은이는 얼마 땃속에서 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주은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주은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 아저씨처럼 장래 희망이 '어부'가 되겠다는 우리 가정의 보배 주은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정주은(유아부 사령4반) 엄마 박정운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항상 살려주시심을 느낍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매우 잘 넘어 집니다. 한때는 신문 배달을 하였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임이 들 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저의 정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불끈불끈 솟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온 사람이 교회에 관 찼으면 좋겠 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게 항상 힘을 주셨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순명 (사랑부)

새가족과 함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인덕

윤형심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이! 누나 동생 친구나 회사 동료 등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누 군지 모르는 어느 분의 "예수님으세요"라는 말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인덕 형제는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여 년이 넘게 교회가지고 했고, 목사님이 된 친구도 수없이 말하였지만 그때마다 거절하였고 아주 가끔 교회를 몇 차례 다니기도 했지만 길어야 2달이나 6달 정도였다고 합니다.

윤형심 자매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지만 학교 다니고 졸업하여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를 멀리 하었다고 합니다. 우인덕 형제와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인덕 형제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교회가지고 했을때 고백했던(?) 자신이 율형심 자매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주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위 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라 할 수 있는 군대시절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결혼할 자매와 결혼 전에 새가족 양육부를 통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등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출어져 있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윤형심 자매는 그전에는 믿음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가족 양육부에서 양육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달란지 점은 화를 안내게 되고, 화낼 일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성경책을 읽고 싶은 부분만 골라 읽었는데 지금은 골고루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믿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우인덕 형제는 전에는 최고의 직장, 많은 연봉을 받고 일 했을때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불안했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일터에서 최고의 연봉은 아니지만 내가 내 힘으로 못 하는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수료를 하면서 성경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책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왜 성경책을 주냐' 생각 했는데, 아! 그것은 내가 아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꼭 전해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알기 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 이 두분은 9월 마지막주에 새가족양육부를 수료하고 10월 2일 결혼하여 예수님 안에서 새가족 출발하였다.

정리/ 오미리 (새가족부)

교회 탐방 86 유치부 (양양대)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찬양을 하면 주님이 마음 속에 들어온다고 말하는 유치부 찬양대. 완벽하지는 않지만 순수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유치부 찬양대

만 5~6세의 50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찬양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유아부 때부터 찬양대를 했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또 유치부에서 예배 15분 전부터 준비찬양을 하며 모두들 일어나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분위기에 잘 적응해서 찬양대에서도 안전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인예 (음영과장)

유치부 찬양대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며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뛰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바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면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 이름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늘 자신감있게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김소희 (반주)

아이들을 위해 일주일 동안 늘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제가 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 앞에 설 때에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무릎을 꿇아 하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최금실 (지원)

유치부 찬양대를 하며

찬양대를 하는 게 기쁘서 는드론 와요. 그리고 찬양대에서 대표로 찬양을 할 때면 제 가슴이 뛰어요. 예수님은 우리 최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밤에도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어서 안 무서워요. (이희태)

저는 찬양이 좋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을 연습해서 헌금송을 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제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박구리)

찬양을 잘 못 외을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은 헌금위원을 해요. 매일 매일 잘 연습해서 찬양대를 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주연식)

집에서 엄마와 같이 찬양을 연습해서 불려요. 그런데 또 주일 아침에 부모님과 2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연습한 찬양곡이 나오면 소리 높여 찬

양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백서운)

'주의 친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이 가장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유치부에서 찬양을 배우고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부르면 정말 신나요. 찬양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요. (정수연)

찬양을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세요. 눈을 감고 잘 때도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을 하며 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져서 선생님들이 놀랄 때도 있어요. (김은석)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며 살아갈까요? 유치부 어린이들은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총의 자녀로서 우리도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편집실)

다움주일 찬송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다움 주일 찬송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는 요한복음 6장 58절의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특별히 2절과 4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목상해 보자.

2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만찬! 주님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잔을 마실 때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는 귀한 체험을 통해 주님을 만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자.

4절: 주님의 성찬은 어린양 전차에 참여함이 되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 곧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찬양하자.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을 습관적으로 대하지 않고 경성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이 찬송을 목상하면서 주의 만찬을 준비하자.

(찬양위원회)

새 · 가 · 족 · 을 · 원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12	김미연	19	청년1부	김경순(10)	2824	임효정	19	중동1부	김옥현(1)
2813	김은지	19	대학부	김유자(9)	2825	송재성	19	중동3부	이성원(12)
2814	도미정	3	청년2부	강옥혜(17)	2826	김분순	3	소망부	최한지(15)
2815	발계	19	외선부	나영애(연락)	2827	홍은주	19	대학부	김혜경(9)
2816	안혜정	4	장년1부	김인숙(4)	2828	이정수	19	청년1부	김혜경(9)
2817	정서연	4	대학부	김인숙(4)	2829	나홍은	7	장년3부	조윤성(2)
2818	김우연	19	청년1부	김인숙(4)	2830	김정택	18	장년3부	배민수(17)
2819	김명희	1	장년3부	김화순(1)	2831	정성희	17	청년1부	지명준(17)
2820	백재형	1	청년1부	김화순(1)	2832	박종태	2	장년2부	
2821	마쯔바라	14	청년1부	이숙희(14)	2833	박유민	2	대학부	
2822	윤지현	5	청년2부	이숙희(14)	2834	윤정서	2	소망부	한순원(12)
2823	황정수	1	장년2부	김희수(1)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835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